

# 4대 금융지주, 상반기 이자 이익 '19조'

기준금리·시장금리 급등에 '쑥' '빅스텝' 효과 더 많이 늘어날 듯 연말까지 이익 증가세 계속 전망

국내 주요 금융그룹들이 이미 상반기 최대 이익을 거뒀지만, 현재 2.25% 수준인 기준금리가 시장의 예상대로 하반기 2.75~3.00%까지 더 오르면 금융그룹의 이자 이익은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p)만 높아져도 주요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0.03~0.05%포인트 뛰고 이자 이익도 1,000억원 이상 늘어나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금융그룹은 올해 상반기에만 약 19조원의 이자 이익을 거뒀다.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순이자이익과 증가율(작년 동기대비)은 ▲KB 5조4,418억원, 18.7% ▲신한 5조1,317억원, 17.3% ▲하나 4

조1,906억원, 18.0% ▲우리 4조1,033억원 23.5%에 이르렀다. 급증한 이자 이익에 힘입어 순이익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었다. KB금융(2조7,566억원)과 신한금융(2조 7,208억원)의 상반기 순이익이 나란히 2조 7,000억원을 넘어섰고, 하나금융(1조7,274억원)과 우리금융(1조7,614억원)은 1조7,000억 원대에 올라섰다. KB·신한·우리금융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각 금융지주가 출범한 이래 반기 기준으로 가

장 많았고, 하나금융도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작년 하반기(1조7,733억)와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금융그룹의 '이자 장사'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인 이유는 대출 급증과 금리 상승 때문이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가계와 기업 대출이 사상 최대 수준까지 불어났고, 올해 들어서도 가계대출은 다소 부진하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이 5% 안팎 더 증가했다.

대출 자산은 넘쳐나는데 작년 8월부터 시작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시장금리도 올라 대출금리가 뛰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기에 예금금리 인상 속도가 대출금리보다 더디기 때문에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은은 이미 지난 13일 초유의 빅스텝을 밟았고, 시장은 한은이 연내 2~3차례 0.25%포인트씩 더 올려 기준금리가 연말 2.75~3.0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 실적에는 빅스텝 효과가 반영되지도 않은데, 이처럼 기준금리가 당분간 계속 오를 가능성이 커 은행과 금융그룹의 이자 이익 증가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철뉴스



기아는 도시적인 스타일과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국내 대표 소형 SUV '더 뉴 셀토스'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더 뉴 셀토스는 2019년 출시된 셀토스의 첫 상품성 개선 모델로, 도시적인 세련미를 더한 디자인에 차급을 뛰어넘는 성능과 다양한 안전 및 편의사양을 대거 탑재했다. 외장 디자인은 기존 모델의 강인하고 역동적인 스타일을 계승하면서도 미래적 감성이 돋보이는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전면부는 메쉬 라디에이터 그릴에 이를 가로 지르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과 와이드한 형상의 LED프로젝션을 통해 혁신적이고 모던한 분위기를 구현했으며, 측면부는 균형잡힌 실루

엣과 볼륨감 있는 캐릭터 라인으로 역동적인 감성을 담아냈다. 후면부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가로로 길게 적용해 전면부와 통일감을 줬다. 고급스럽고 다채로운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차별화 모델 '그라비티'도 운영한다. 그라비티 모델은 다크 메탈을 적용한 ▲라디에이터 그릴 어퍼 및 로워 가니쉬 ▲헤드램프 어퍼 가니쉬 ▲프론트 및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를 비롯 ▲18인치 블랙 알로이 휠 ▲블랙 아웃사이드 미러 등을 통해 강인한 SUV 이미지를 구현했다. 실내에도 차별화된 고급스러움을 담는데 주력했다. 기아는 10.25인치 클러스터와 10.25인

치 내비게이션을 연결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배치해 시인성을 높였으며, 통합형 컨트롤러와 전자식 변속 다이얼(SBW) 등 최첨단 편의사양 탑재와 더불어 모던하고 볼드한 느낌의 센터 가니쉬를 대시 보드에 적용했다.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편의기술을 탑재해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에도 주력했다. 기아 관계자는 "더 뉴 셀토스는 도시적 세련미를 강화하고 차급을 뛰어넘는 신기술 사양을 대폭 적용한 것이 특징"이라며 "하이엔드 감성을 한층 더 높은 상품성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큰 만족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 기아, 2분기 매출액 '역대 최대' 기록

매출 19.3%·영업이익 50.2% ↑ "하반기 판매 회복 본격화 될 것"

기아가 올해 2분기 2조 2,341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기아는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 기아 본사에서 컨퍼런스콜로 기업설명회를 열고 2022년 2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2분기 기아는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73만 3,749대를 판매했으며, 이를 통해 IFRS 연결 기준 ▲매출액 21조 8,760억 원 ▲영업이익 2조 2,341억 원 ▲경상이익 2조 6,239억 원 ▲당기순이익 1조 8,810억 원을 기록했다.

판매대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2.7%로 하락했으나 매출액은 19.3%, 영업이익은 50.2%, 경상이익은 42.8%, 당기순이익은 40.1% 상승한 것이다. 이에 기아 관계자는 올해 2분기 실적과 관련해 "일부 부품 수급 차질과 재고부족이 지속되 도매 판매가 감소했지만, 높은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고수의 차량 중심의 판매 구조와 인센티브 축소로 통한 '제값 받기' 가격 정책, 우수한 품질 효과가 더해져 매출과 수익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 차종과 전 지역에 걸쳐 기아 차량에 대한 강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부품 수급 개선에 따른 생산차질 완화가 예상되는 만큼, 판매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하반기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국제 관계 불안정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 심리 위축 등 불안정한 대외 환경을 예의주시하면서도 하반기 가시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 수급 상황이 2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전환경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확대되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전년 대비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다. 이에 기아는 반도체 등 부품 수급 상황 개선과 연계해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용 재고 및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높은 대기 수요를 빠르게 해소하고 판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 한은 통화정책 경시대회 예선 전북대 '금리빨' 팀 최우수상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지역예선대회에서 전북대학교의 '금리(金利)빨'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이번 대회에는 광주·전남·

전북·제주에 소재한 대학생 중 예심을 통과한 5개 대학 6개팀이 참가했으며, 각 팀은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 주요 고려사항 및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준금리 결정 과정, 통화정책 체제에

대한 이해도 등에 대해 심사위원 질의에 답변했다. 6개 팀 간의 열띤 경합 결과 최우수상은 전북대학교의 '금리빨' 팀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제주대학교 'STJP' 팀, 장려상은 전남대학교 '금린이' 팀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각 수상팀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상장 수여됐으며, 최우수상 수상팀에는 내달 12일 열릴 예정인 전국결선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됐다. /오지현 기자

## 한전, 공기관 최초 '정보보안 GRC 시스템' 구축

보안 리스크 식별·측정·관리 전사적 내부통제 환경 제공

한국전력이 최근 '실시간 위험평가 기반 정보보안 GRC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GRC는 거버넌스(Governance),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규정 준수(Compliance)의 영문 첫 자 조합으로 조직의 내부통제 구조와 리스크 관리, 규정 준수 활동을 다루는 전략을 의미한다. 글로벌 경영환경이 ESG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해외에서는 이미 2000년대부터 많은 기업들이 정보보안 GRC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민간 금융사 한 곳을 제외하고는 GRC 시스템 구축이 전무하다. 이에 한전은 공공기관 최초로 정보보안 GRC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공분야 정보보안 관리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복안이다. 한전의 '정보보안 GRC 시스템'은 기업의 경영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리스크를 식별·측정하고 관련 규정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전사적 내부통제 환경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한전은 그동안 여러 담당자 및 부서에서 분산돼 관리되던 정보보안 위험요소들을 실시간으로 종합·계량화하고, 이에 따른 위험 개선조치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함으로써 정보보안 관리에 대한 즉시성 및 가시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에 한전은 최근 전력연구원에서 '정보보안 GRC 구축 결과 발표회'를 개최해 국정원, 산업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학회 등 대내외 관계자들에게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정복 한전 상생관리본부장(정보보안총괄 임원)은 "한전은 국내 대표 공기업으로서 정보보안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번에 구축한 정보보안 GRC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전은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에서 최근 농협전남본부 내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해 답례품 포장디자인 전시회를 개최했다.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제공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포장디자인 전시회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본부장 이창기)는 최근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해 답례품 포장디자인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 농축산물로 구성된 다양한 답례품 포장 디자인을 전시, 홍보함으로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고객의 관심을 높이고 전남 농축산물이 답례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았으며, 농협은행 고객사은품 포장에도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와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

도다. 또한 답례품은 기부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를 받은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전시회는 전남지역본부 건물 내에서 이뤄졌으며, NH농협은행 전남 관내 시군지부에서 22개 시군의 특색 있는 포장디자인과 대표 농축산물 사진이 출품됐다. 이창기 본부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우리 농축산물 답례품을 알리기 위해 출품작을 지역축제 및 시군에 순회 전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성진 기자